DMZ서 분단 아픔 달랜 평화명상에너지

한국참선지도자협회, 임진각서 '세계평화명상대전'

아잔간하·아잔브람 스님 등 5천여 명상수행자들 운집해
혜국 대종사, 평화기원 법어
"진정한 평화는 불살생" 강조

파주=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세계적 수행승인 아잔브람을 선두로 세계평화명상대전 참가자들이 DMZ생태탐방로를 걸으며 걷기명상을 하고 있다.


한국참선지도자협회장 각산 스님 지도에 따라 참선실참하는 참가자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 분단의 상징인 DMZ비무장지대서 수천여 명상수행자들이 평화를 염원했다.

한국참선지도자협회(회장 각산)는 10월 13일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서 세계적 수행승 아잔간하와 아잔브람 스님, 한국대표 수좌 혜국 대종사 등을 초청해 '2018 세계평화명상대전'을 거행했다.

한국참선지도자협회 출범행사이기도 한 세계평화명상대전은 국내외를 대표하는 4명의 명상스승과 5000여 명의 불자들이 운집해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 평화가 자리 잡고, 세계평화로 이어지길 바라는 염원을 담았다.

명상스승으로는 해외에서 태국의 전설적 고승인 아잔차 스님의 두 제자, 아잔간하와 아잔브람 스님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아잔차 스님의 직계제자인 아잔간하 스님은 50년간 밀림서 두문불출하며 탁발 수행을 했으며 '루앙 포 야이(최고의 스님)'로 평가된다. 아잔브람 스님은 동양의 참선을 서양으로 전파한 수행승으로서 호주 보디냐냐 수도원장을 맡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국내 수좌들을 대표하는 혜국 대종사와 대만 대표 선승 심도 선사도 함께했다.

이날 혜국 스님은 '한반도 평화기원 기조법어'를 통해 힘의 논리가 아닌 만중생의 평등에 따른 평화를 추구할 것을 강조했다.

혜국 스님은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평화를 불살생으로 보셨다. 내 생명이 소중하면 남의 생명도 소중한 것이 당연하고, 생명의 소중함 그 자체가 평화라고 말씀하셨다"면서 "하지만 인간은 언제부턴가 다른 생명보다 인간의 생명을 더 무거운 것으로 평가하게 됐다. 그러나 코끼리든 비둘기든 인간이든 모든 생명은 다 똑같이 소중하다"고 말했다.

혜국 스님은 이어 "우리는 말로만 평화를 논할 뿐 무엇이 진정 완벽한 평화인지 고민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평화를 마음으로 받아들일 자세를 만드는 게 우선"이라며 "흙탕물에 달이 비치지 않지만 달은 항상 존재한다. 평화의 달, 마음 달이 우리 속에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만 투쟁과 욕망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잔브람 "한반도 분단 해결 기원"

혜국 스님 법어에 이어서는 선무도 체조와 3천여 사부대중의 명상실참이 진행됐다. 사부대중은 참불선원장 각산 스님의 지도와 좌종소리에 맞춰 입정에 들었다. 30분간의 명상실참이 끝난 뒤에는 아잔간하와 아잔브람 스님의 세계평화 메시지가 이어졌다.

당초 메시지는 아잔간하 스님이 발표하기로 돼 있었으나 아잔간하 스님은 아잔브람 스님에게 대신해줄 것을 부탁했다.

아잔브람 스님은 "아잔차 스님 밑에서 수행할 때 메콩강가에 있었다. 바로 건너편이 라오스였는데 너무 가까워서 태국 북동부와 라오스가 같은 언어를 썼다. 물론 쉽게 건너갈 수는 없었다"면서 "하지만 오늘날에는 마음대로 국경을 드나들 수 있고, 태국인과 라오스인들이 서로 사랑하며 지낸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인위적으로 북으로, 남으로 나눠놓은 한반도의 분단 상황도 이처럼 해결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걷기명상에 참가하기 위해 이른 아침 서울에서 파주까지 왔다는 김모 씨는 "평소 수행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수행장소가 우리나라에 큰 의미 있는 곳이어서 참가하게 됐다"며 "한동안 분단의 상징을 걸으면서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마음의 평화는 무엇인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세계평화명상대전 봉행위원장 각산 스님은 "불교에서 삶은 고해라고 하지만 천국에서도 바라는 바가 있으면 지옥이고, 시련 속에서도 이 순간을 기회로 받아들이면 고는 곧 해탈"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임진강은 더 이상 분단의 강이 아니고 평화의 강이다. 평화명상에너지가 이곳에 뿌리내리길 바란다"고 행사 의의를 설명했다.

조계종, 제26회 불교언론문화상 공모

11월 9일까지 접수… 대상작에 1000만원

조계종이 제26회 불교언론문화상 작품을 오는 11월 9일까지 공모한다.

공모부문은 △방송부문상(TV·라디오 프로그램) △신문부문상(기획 및 보도기사) △뉴미디어부문상 △불교언론인상 △특별상이며, 대상은 출품작 중 가장 뛰어난 작품을 시상한다. 뉴미디어부문은 인터넷, 모바일 콘텐츠를 통해 우수한 활동을 하고 있는 사이트 및 작품으로 독립인터넷TV, 홈페이지 및 카페, 블로그, 유튜브, 팟캐스트, 웹툰 등이 포함된다. 불교언론인상은 불교언론인 중 공로가 있는 원로 언론인을 선정한다. 또한 특별상은 방송, 신문, 영화(애니메이션 포함), 광고, 미디어교육 등 기타 미디어 분야에서 우수한 작품 또는 사람을 시상한다.

상금은 대상 1000만원, 각 부문별 최우수상 300만원, 우수상 200만원, 불교언론인상 300만원, 특별상 200만원이다.

출품 대상은 2017년 8월 4일부터 2018년 11월 9일까지 제작 발표된 작품이며, 응모는 응모사유서를 통한 직접응모와 언론 및 불교관련 분야 전문인사의 추천을 받는 추천응모로 나뉜다. 응모사유서와 추천서는 별도 양식 없이 자유롭게 작성하면 된다.

공통 서류는 작품개요서 및 추천서(응모사유서) 1부다. 방송부문은 작품명과 방영일시, 담당PD, 제작사 및 방영사명, USB 각 10부를 제출해야 한다. 신문부문은 신문사명, 기사 제목, 게재 날짜, 기자명을 비롯해 연재물은 전면 기사 사본(원본 크기)10부를, 그 외 기사는 USB(PDF파일) 10부를 제출하면 된다. 뉴미디어부문은 사이트명과 사이트 주소, 단체 대표, 개설일, 운영자명, 콘텐츠 소개 등을 USB에 담아 10부 제출해야 한다.

기본양식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서 받을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우편 외 이메일(media@buddhism.or.kr)로 추가 전송해야 한다. 심사결과는 개별통지하며, 시상식은 12월 18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02)2011-1770

윤호섭 기자

"행복한 죽음과 삶, 한발짝 더 나가자"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제9회 호스피스 세미나 성료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협회장 능행, 울산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장)는 10월 1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9회 호스피스세미나 '섭섭하게 그러나 아주 이별이지는 않게 답하다'를 개최했다.



불교호스피스협회가 개최한 제9회 호스피스세미나서는 활발한 호스피스 활성화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세미나에는 100여 호스피스 관계자와 불자대중이 모여 호스피스 현황에 대해 듣고 함께 확산을 논의했다.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장 능행 스님은 인사말에서 "삶의 여정이 죽음에 대한 도전이라면 우리들은 어떻게 도전해야 하며 그 도전에 앞서 죽음이 품고 있는 성향에 대해 배우고 경험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수행자로서 책임과 한 인간으로서 동질감을 느끼며 생의 반을 넘어 사선에선 환자를 돌보고 있는 제게 던져진 물음들에 여러분을 모시고 진솔하게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고 세미나 의미를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는 1부 강연과 2부 시상식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기조강연은 임병식 한국싸나톨로지협회 이사장이 맡았다. 임 이사장은 "죽음학인 싸나톨로지의 관점에서 품위있고 행복한 죽음은 자신의 존재적 의미를 깨닫고 가장 소중한 사람과 화해, 사랑을 전달하고 떠나는 것"이라며 "한발짝 더 나아가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한다면 남은 삶의 질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미나에서는 영적돌봄가 팀장인 능인 스님의 호스피스가 걸어온 길 소개와 영적돌봄가 소개, 치유음악 연주회 등이 진행됐다. 또 2부 행사로 능행 스님이 대중들과 즉문즉답을 진행했다. 이어 시상식에서는 포교원장상에 정토마을 염불수행 보조 지도법사인 영적돌봄가 도우 스님, 제7회 더아름다운사람 호스피스봉사상에 부산지부 신미라 씨, 제주지부 김세권 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환경연대, 31일 숲해설 심화교육 개강

불교적 생태관을 바탕으로 하는 숲해설 심화교육이 마련됐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는 10월 3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숲 해설가를 위한 심화교육 '수요일은 '숲'요일'을 진행한다. 수요일마다 2시간 30분씩 5주간 진행하는 해당 교육에는 11월 11일 봉선사 숲 현장탐방도 포함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강의 5회와 현장교육 1회로 구성된다. 강의는 불교환경연대 교육장(종로구 삼일대로 32길 22, 3층)서 오후 6시 30분에 시작한다. 또한, 현장교육으로는 11월 11일 이봉규 숲과함께 대표와 함께 봉선사 사찰림을 탐방할 계획이다.

교육에는 숲 해설가뿐만 아니라 숲해설에 관심 있는 일반인도 참여 가능하다. 참가비는 6만원(불교환경연대 회원 3만원)이며, 10월 24일까지 계좌(국민 023501-04-069889 예금주:불교환경연대) 입금방식으로 신청 가능하다. (02)720-1654

김지원 기자



오곡이 무르익는 풍요로운 가을에, 부산 해운정사에서는 제4회 불조심인전등다례대재를 맞이하여 오는 10월 30일부터 2박 3일간 『사부대중 주야용맹정진법회』를 개최합니다.
부처님과 역대 조사스님들의 은혜를 기리며 참나를 찾는 참선 용맹정진과 함께 정성어린 공양을 올리는 뜻깊은 행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2박 3일 주야용맹정진

- 입 재 : 10월 30일(음9.22) (화) 오전 10시
- 회 향 : 11월 1일(음9.24) (목) 오전 11시
- 동참금 : 6만원 (스님은 무료)

※행사준비 관계로 참가하실 분은 미리 접수바랍니다.

불조심인전등다례대재

- 일 시 : 11월 1일(음9.24) (목) 오전 11시
- 장 소 : 해운정사 불심인 조사전
- 2부 경로잔치 : 국악인 김성녀 축하공연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정사** 주지 지성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2로 40-6 (해운대역 뒤편 5분 거리)
문의접수 051) 746-2256, 744-4812
팩 스 051) 741-8882
홈페이지 http://www.seon.or.kr